

지혜의 보고 佛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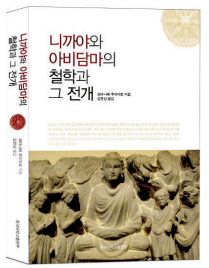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8 ~ 6/3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	최혜자	운주사
2	붓다순례	자현	불광출판사	7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항적	조계종출판사
3	도교대학 불교학과	정상교	동아시아	8	항기로 온 동다어 깨달음의 환희리대	원학	김영사
4	뛰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9	마하박가(울장대품)	전재성	한국불교출판사
5	마음의 정원을 거닐다	지안	불광출판사	10	무문관수행지와 중문학자가 함께 풀이한	안재철, 수암	운주사



초기불교, 아비담마 논서가 계승

니까야와 아비담마의 철학과 그 전개

와타나베 후미마로지음 | 김한상 옮김
동국대학교출판부 | 2만 원



아비담마(abhidhamma)는 장·장·장(論藏) 철학의 기원을 가장 오래된 빨리 니까야와 단편적인 산스크리트 판본 그리고 한역대장경과의 비교를 통해 각기 다른 부파의 접근법으로 분석한 학술서로 불교 철학의 논리적 측면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논(論)이란 원래 법(法)에 대한 연구의 미한다. 이 원래의 뜻에서 볼 때 아비담마의 기원은 부처님 재세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그 무렵 이미 비구들 사이에서 부처님의 교법에 대한 학습, 연구, 토의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함경>의 기술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비담마는 후대에 주로 교단이 여러 부파로 나누어진 뒤 그 부파들 안에서 급속히 발전한 아함의 연구 및 그 교의를 조직화하려는 노력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소산으로 점차 여러 부파들 안에서 저술된 교의의 해설서, 강요서 논술서 등을 아비담마라고 한다. 바로 이것이 논장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니까야에서부터 더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아비담마 문헌에 이르기까지 불교철학의 논리적 측면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탐구한다. 저자는 특히 상좌부, 설일체유부, 독자부가 심도 있는 철학적 논쟁에 채용한 기법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빨리 원전들과 한역본들로 전해지는 산스크리트 아비담마 텍스트들을 면밀히 대조하고 있다.

저자의 연구 중심 테마는 불교 전통에서 사유나 추론의 한 방법으로 논리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직설로 여겨지는 법문들, 특히 대화들 중 일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체이지만 다른 일부는 논리적 원칙들이 구현되는 체계적인 방식의 논증들로 가득하다. 여기서 독자는 연구 텍스트가 접근 가능한 불교 전승의 초기기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저자가 다른 판본들의 한역 불전과 빨리본을 면밀히 대조하였음을 주목하고 있다.

아비담마 후대 논자들의 산물 아닌 경장속 '토론'의 직접적인 발전

저자는 논장, 즉 아비담마 뼈대까가 부처님의 직설이 아니라 후대 논자들의 철학적 사유의 산물이라는 견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저자는 아비담마가 경장에 나타난 토론 형식의 직접적인 발전이고,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은 논리적 전개 과정에 관심을 가졌으므로 마음, 마음작용, 물질, 열반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을 것이라고 서술한다.

저자는 '답마에 대한'이란 뜻을 지닌 용어 아비담마의 의미부터 탐구한다. 왜냐하면 그는 초기불교의 논증과 추론의 방법이 아비담마 논서들의 체계적이고 형식화된 표현으로 곧바로 계승되었다고 바르게 추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비담마라는 방법 자체는 불교도들의 초기 논리라는 것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정형화된 마따까는 아비담마 뼈대까의 발전에서 가장 고층을 의미한다는 것이 저자의 추정이다. 또한 아비담마라는 용어는 <니까야>와 <아가마>에서 철학적 개념을 정의한 교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고 결론을 내린다.

2부는 '논리적 견지에서 초기 불교도들이 사용한 논법의 스타일이 지닌 특징들이 분명해지는 곳'인 대화형식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는 니까야와 아가마 자체에도 아주 잘 개발된 대화형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니까야와 아가마에서 쓰인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에 대해 엄밀히 분석하고 있다. 부처님이 반대한 육사외도 중 한 명인 산자야 벨라타빠다가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답변한 '뱀장어처럼 종잡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교설'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저자는 초기불교의 추론 방식으로서 '딱까'와 '담마딱까'의 관계를 고찰한다. 담마딱까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사성제)에 입각한 추론'으로 명확하게 밝혀진다. 이는 경들에 나타나는 논리적 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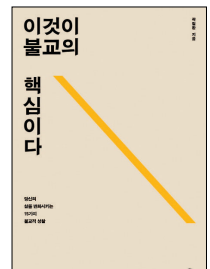
저자는 후반부에서 B.C. 3세기 초반 상좌부에서 분립한 독자부의 보특가라론(補特伽羅論)을 반박하는 논쟁을 상세히 논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3세기 분열 이전의 핵심적인 공통분모로부터 나왔을 상좌부와 설일체유부의 상이한 판본들인 <까타왓투>와 <식신족론>에 빨리어와 한문으로 각각 보전되어 있다. 이러한 공헌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빨갈라에 관해 독자부와 별인 논쟁에 대한 <식신족론>의 기여가 이제까지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11장에서 <까타왓투>와 <식신족론>의 엄격히 형식화된 논의를 고찰한다. 여기서 진정한 '형식논리학'이 불교 전통에서 처음 등장한다. 아쇼카 왕의 통치기에 서로 갈라진 두 부파가 전승한 이 두 텍스트의 부분적 일치에 엄격한 논증 절차로 형식화된 논의를 전개하던 관습에서 비롯된 형식논리학이 발생한 시기가 B.C. 3세기임을 확인해 주는 듯하다. 본 연구의 백미는 이제까지 <까타왓투>의 기록과 충분히 비교되고 분석되지 않았던, 독자부를 논박하는 <식신족론>의 전모를 밝힌 것이다.

박재원 기자 waniholo@hyunbul.com

원고지 500매로 압축한 부처님 말씀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박재원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2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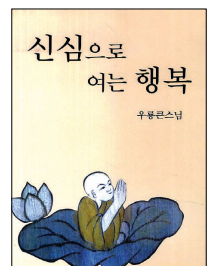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 <불교길라잡이>와 <사공불교사전>의 저자 박재원이 평생 품어온 의문이다. 책은 저자 자신이 풀어왔던 의문에 대한 답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반대함을 흔히 8만 4천 가지 경문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한국의 고려대장경만 해도 그 양이 엄청나다. 거기에 남방에서 보존해온 초기경전과 다양한 논서까지 더하면 가치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그 대의를 알기란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교의 핵심일까? 저자는 부처님의 방대한 가르침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모아 단락을 만들고, 단락과 단락을 모아 한 편의 글이 되기까지 쓰고 읽고 다시 쓰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자신이 배우고 익히며 실천해온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정리하고 있다.

“문제는 신심(信心)”

신심으로 여는 행복

우몽 스님 지음 | 효림 펴냄 | 6천5백원



불자 삶의 기초가 되는 신심이 무엇인지를 밝힌 다음, 윤회에 대한 확신, 믿음 깊은 공경과 기도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그리고 불자들의 믿음과 실천의 원리인 불성과 무주상, 불자들이 꼭 실천해야 할 것들을

리했다. 그렇게 원고지 500매로 압축되어 나온 책이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이다. “불교는 고(苦)에서 시작해서 열반으로 마친다.” 저자는 우리가 궁극에 도달하고 싶은 ‘열반’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소멸이라고 말한다. “중생의 탐욕이 끝없는 건, 예고의 속성이 ‘부족감’ 이어서 결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분노는 ‘저항’이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저항이고, 오고 가는 인연을 거스르는 저항이고, 허망한 예고에 상처를 받아서 치솟는 저항이다. 어리석음은 자신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매사에 얼마나 잘 분노하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며 “따라서 열반으로 가는 길에 복잡한 교리 따위는 필요 없다. 예고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은 자연히 사라진다”고 말한다.

저자가 방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핵심만 골라 정리한 이유는 중생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잡한 교리보다 열반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인 삼독을 벗어나는 수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참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헛된 생각과 불안이 엄습해온다. 모두 예고에 대한 집착이 불러일으키는 망상이다. 이미 알고 있지만, 마음은 결코 내 뜻대로 쉽게 평안해지지 않는다. 끊임없는 망상은

불교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해서 찾아드는 게 아니다. 이 대목이 어떤 책의 취지를 강조한다. ‘얕’이 곧 ‘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지나치게 ‘얕’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 책이 나온 ‘이유’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 가득한 부질없는 생각과 감정을 소멸시킬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책은 그렇게 마음속에서 부질없는 생각과 감정을 소멸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얕’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를 배우는 목적인 단지 이런저런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함이다. 마음의 작용을 파헤치는 복잡한 교리에 몰두하기보다 고(苦)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여 안심을 자주 누리라는 뜻의 압축된 텍스트이다.

책은 고(苦)는 무엇인지,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고(苦)에서 열반으로 가는 4제, 고(苦)가 일어나고 소멸하는 열두 과정, 무상(無常)과 무아(無我), 공(空) 등으로 불교의 핵심을 짚는다. 그리고 열반으로 가는 세 가지 수행 3학파, 4명처(念處), 위빠사나, 선(禪)까지 열반의 4가지 방법과 불안을 엄습해온다. 모두 예고에 대한 집착이 불러일으키는 망상이다. 이미 알고 있지만, 마음은 결코 내 뜻대로 쉽게 평안해지지 않는다. 끊임없는 망상은

또한 네 번째 ‘부처님 오신 뜻과 불성’의 장은 실천동자, 보시태자, 인욕선인 등 부처님의 전생 수행담과 탄생에 얽힌 인연설화와 함께 ‘불성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스스로의 불성을 주춧돌 삼아 정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섯 번째 장 ‘무주상하면 무한행복’에서 스님은 그릇된 마음을 다스리고 참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아상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여섯 번째 장 ‘이 실천만은 꼭’에서는 불자들이 단순히 절에 다니는 것만을 신행생활의 전부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루어나기를 염원한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작은 실천 큰 행복’을 통해 가족을 향한 오체투지야말로 나의 욕심과 고집을 사라지게 하고 ‘나’를 떨어뜨려 나가기 만드는 무아체득의 방법이냐 확실한 수해의 첫걸음이라 힘주어 말한다.

박재원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신간! 바로보인 전문염송 제25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전문염송, 전 30권중 25권 출간!
운문, 장경, 경장선사, 부 상좌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탐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완전한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려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한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흠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데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전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문화진흥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